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1. 정의를 가로 강씨를 불쑥 리럼 평지 환가은 들수난의 불치세림
 2. 눈물가로 강씨를 불쑥 리럼 평지 환가은 들수난의 불치세림

사랑이라 햇-빛처럼 새하늘이- 생명작열된다
 보이라 우리는 앞 에 하나님 주신 활짝 열린다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길 주의 약속곧게 믿으며
 우우우우

변색 일품 변 넘어 어저 도약 속을 곧게 믿으며
 아 넘어 어저 도약 속을 곧게 믿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A. A. Pollard 사 G.C. Stebbins 곡 한국찬송가공회 역

1. 고요한 중애에 기도하니
 2. 주님 발 앞에 엎드려
 3. 병들어 몸을 이 피곤할 때
 4. 온전히 나를 주정하시

건흥과 같은 날빛은 사사 주님의 형상만드소서
 나의 맘 속을 내게 피사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과 함께 동거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p>73 손수 나를 빚어 만드셨으니 깨우침 주소서. ○ 당신께서 명하신 것 가르쳐 주소서.</p> <p>74 내가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두고 살기에 ○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나를 보고 기뻐하리이다.</p> <p>75 주여, 당신의 판결은 옳습니다. ○ 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도, 당신의 진실하심 때문이옵니다.</p> <p>76 일찍이 당신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 사랑을 내리시어 위로하소서.</p> <p>77 당신의 법이 나의 기쁨이오니 ○ 인자를 베푸시어 살려 주소서.</p> <p>78 거짓말로 이 몸을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일랑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 이 몸은 주님의 계명을 되새기리이다.</p> <p>79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돌아오게 하시고 ○ 당신의 언약을 깨우친 이들, 나에게 오게 하소서.</p> <p>80 이 마음이 당신의 뜻을 따라 깨끗이 살고 ○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p> <p>81 이 몸이 당신 말씀에 희망을 걸고 ○ 당신의 구원을 향하여 끝까지 가오리이다.</p> <p>82 이 몸이 당신 약속을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 언제 나를 위로해 주시렵니까?</p> <p>83 나 비록 연기에 그들린 가죽부대처럼 되었으나 ○ 나는 당신의 뜻을 잊지 않으리이다.</p> <p>84 당신의 종이 살날이 많지 않사오니 ○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 심판하시렵니까?</p> <p>85 당신의 법을 반대하는 교만한 자들이 ○ 내 앞에 함</p>	<p>정을 뵈었습니다.</p> <p>86 당신이 법령은 조목조목 참되오니, ○ 거짓이 나를 핍박할 때에 나를 도와주소서.</p> <p>87 이 땅에서 저들이, 이 몸을 거의 죽여 놓았어도 ○ 나는 당신의 계명을 버리지 않으리이다.</p> <p>88 당신의 사랑으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 친히 일러 주신 언약을 지키리이다.</p> <p>89 주여, 당신 말씀 영원하시고 ○ 변함없이 하늘에 있습니다.</p> <p>90 당신의 진실하심 만세에 이르오며, ○ 손수 만드신 저 땅은 흔들림이 없습니다.</p> <p>91 모든 것이 당신의 종들이오니 ○ 당신의 결정 따라 오늘까지 변함없이 있습니다.</p> <p>92 당신의 법이 나의 낙이 아니었다라면 ○ 이 몸은 고통 속에서 죽었으리이다.</p> <p>93 계명들을 주시어 나를 살려 주셨으니 ○ 죽어도 그것을 아니 잊으리이다.</p> <p>94 이 몸이 당신의 것이오니 구원하소서. ○ 애써 당신의 계명을 찾으리이다.</p> <p>95 악인들이 이 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사오니 ○ 나는 당신의 언약을 명심하리이다.</p> <p>96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한계가 있는 줄 아오나, ○ 당신의 계명들은 완전하십니다.</p> <p>○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p>
--	---

마르코(마가) 복음 8:11-26

<p>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 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p>	<p>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열두 광주리입니다."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일곱 광주리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벳새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시 말아라."</p> <p>○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p>
--	---